

## 작품 개요

나운영은 1945년 중앙여자전문학교(중앙대학교의 전신) 전임교수로 취임했는데, 중앙여자전문학교의 부학장인 시인 김태오(金泰午, 1903~1976) 선생에게서 시집 『초원』을 받고 그 중 「달밤」에 마음이 이끌리어 구상 끝에 24세 되던 1946년 8월 16일 완성하였다.

그런데 김태오 선생은 일찍이 흥난파 선생에게 바이올린 레슨까지 받았던 본인지라 남달리 음악을 깊이 이해하였다. 그래서 나운영과 김태오는 서로 합작하여 작품을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 쓴 것이 「건국의 노래」요, 두 번째 쓴 것이 「달밤」이요, 세 번째 쓴 것이 「중앙대학교 교가」이다.

「달밤」은 8월 19일 JODK(경성중앙방송국)에서 부인인 알토 유경손(柳慶孫, 1921~2011) 독창, 나운영의 반주로 초연되었고, 1952년에 발행된 나운영의 첫번째 가곡집 『아흔 아홉』에서 출판되었다.

## 작품 해설

이 곡은 선율의 음폭이 비교적 크면서도 매끄러운 유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반음계적인 선율이 묘한 주의를 끌며 곡의 섬세함과 우아함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반주 저음부분에 나타나는 대선율의 움직임은 당시 다른 가곡의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예술적 우수성이 돋보이는 기교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화성은 단순한듯 하면서도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어서 간결하지만 듣기에 쉬운 작품은 아니다. 형식은 전반부와 두 악구(section)로 되어있다. 전반부는 아기가기하고 부드러운 선율이 중심이 되나 후반부에서는 역동적인 진행으로 청중에게 호소력 있는 힘을 발휘한다.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프레이즈인 '이 한 밤' 을 되풀이하면서 A음에서 VI의 부속화음으로 화려한 장식을 한다 이 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주부분에서 나타나는 선율적 반진행과 베이스의 이중옥타브가 클라이막스의 라(A)음의 효과를 더욱 강조해 주고 있다.

- 이창자, 나운영의 가곡 작품의 유형별 분석, 음악과 민족 제9호, 민족음악연구소 중에서 -

## 달밤에 얽힌 이야기

이 곡을 누구보다도 먼저 인정해 주신 분은 이관옥 선생이시다. 그래서 선생의 추천으로 전국 중등학생 음악경연대회(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주최)의 지정곡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당시 창덕여고 황영금 학생(현 연세대 교수)이 이 곡을 불러 1등을 차지하기도 했으니 이것이 첫째 에피소드이다. 그 후부터 소프라노나 테너는 누구나 「달밤」을 자기들의 레퍼터리에 넣고 즐겨 부르게 되었는데 이 밖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 즉 화상을 입고 두문불출하던 이인범 선생의 「재기 독창회」가 열렸을 때 제일 마지막 프로에서 「달밤」을 불렀는데 3창·4창까지 받아 그야말로 열광적인 호평을 받게 된 후로는 더욱더 널리 애창될 수밖에...

「달밤」은 흔히들 느리게 부르는데 그래야만 로맨틱하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나 이 곡은 <4분음표=88>로 즉 보통 빠르기(모데라토)로 불러야만 피아노 반주의 8분음표의 리듬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의 왼손에 나오는 대위법적 선율(대선율)을 의식하면서 노래를 하거나 들어야만 제멋과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기계적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점점 빠르게—그다음에는 점점 느리게」 즉 「템포 디 루바토」로 연주해야만 로맨틱한 정감이 살아난다. (나운영 수상집 중에서)

4 달 밤 金素雨 作词  
羅道學 作曲

Moderato (M.M. ♩ = 88)

들불을 끄고 자-러라니 휘앙창창문이 밤-드-오  
어대서 울으는 단 소소리 휘랑라달밤은 밤-이-오  
문을 열고 너머다보니 달은 너더쁜 심-치같이  
솔바람이 선비안기밤에 달은 외로운 갈-손같이  
내 뜻을 위 에-칼-어모다 달 아-네  
또 어더로-가-러는고 달 아-네